

지금, 그냥 있어지는가?

| 용타스님 |

아무 이유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있어 보라 말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11부)

052. 돈망삼관頓忘三觀과 각수覺受

인생이란 다양한 경험의 과정일 것이다. 사람이 경험하는 것들이 몇 가지나 될까? 당연히 골백만 가지이겠지. 어떤 경험은 할수록 지옥을 향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경험은 행복의 양을 넓혀주는 것일 수 있다. 나아가 어떤 경험은 구원과 해탈을 결정하는 것일 수 있다. 바로 돈망頓忘의 경험은 구원과 해탈을 결정하는 길이다. 용타단상龍陀斷想은 돈망頓忘 중심의 글이라 했다. 여기까지 읽어 오신 분들께서는 어떠하실까 궁금하다. [041. 돈망의 모든 것]을 거듭 읽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돈망3관은 돈망 안내를 위한 열 번째 정도의 업그레이드판이다. 그지없이 복습할 것은 돈망3관이다. 즉 [그냥 있다. 기초수基礎受를 그대로 수용한다. 아我和 법法이 공空하니 걸림 없이 그냥 깨어 있는 것이 할 일 전부이다.]라는 세 문장이다. 이 세 문장을 [돈망삼관頓忘三觀]¹⁾이라 한다. 아마 이 세 문장만 거듭 씹듯이 허심하게 음미해도 용타가 경험시키고자 하는 돈망頓忘을 파지把持할 것이다. 그리고 여타의 글들도 돈망파지를 돕는 인문학이 될 것이다.

자, ‘그냥 있다—.’하고 속으로 제 1관을 읊조리면서 그냥 있어보라. 이때, 그냥 있음으로 인한 ‘느낌’이 어떠한가 느껴보라. 실은 제 1관 ‘그냥 있다.’가 돈망頓忘 전부이다. 제 1관으로 돈망이 완벽할 수

1) 참고적으로 이르는데, 돈망삼관(頓忘三觀)의 이전 버전은 현 버전의 제 3관인 <기초수를 수용한다>가 빠지고, 현 버전의 제2관이 둘로 나뉘어져 <아공법공이니 안팎으로 관심 갈 것 없다>가 제 2관, <그러하니 그냥 무장무애하게 깨어 있는 것이 이 일물의 할 일 전부이다>가 제 3관이었다.

만 있다면 이어지는 제 2관이나 제 3관은 필요 없다. 그러나 대체로는 완벽하기 어려울 것이다. 설혹 완벽하다 하더라도 2관과 3관을 시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그냥 있음은 무위無爲이다. 따라서 그냥 있음에 상응하는 느낌은 각수覺受이다. 이 각수覺受가 확연하게, 은밀하게 감지感知되는 것이 돈망의 결론이다.

다음, 이어서 제 2관인 ‘기초수基礎受를 그대로 수용한다.’를 속으로 읊조린다. 느껴지는 기초수가 있다면 그 기초수基礎受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되, 수용할 때의 느낌을 느껴보라. 기초수基礎受를 수용할 때는 해인칠관海印七觀²⁾의 전前 3관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기초수가 사수捨受일 때는 굳이 기초수 수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기초수基

2) 해인칠관 제1, 수관(受觀): 현재 자신의 의식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느낀다. 마음과 몸에 느껴지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그대로 의식한다 해도 된다. 이것이 회광반조(廻光返照)의 기초이다. 느껴지는 이 상태가 아무리 좋더라도, 혹은 아무리 안 좋더라도 그것을 기뻐하거나 혹은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느낀다. 이것이 수관이다. 해인칠관 제2, 인과관(因果觀): ‘현재 느껴지는 이 상태, 이 현실은 나의 과거, 전생, 전전생까지의 모든 과거를 원인으로 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요, 필연적인 인과이다.’ 하고 사유한다. 즉, ‘현재의 이 현실 이 상태는, 이 순간까지 내가 지은 바, 성숙 혹은 미성숙한 업, 행위의 결과인 것이니 좋은 상태이든 안 좋은 상태이든 달게 받아야한다. 현재가 안 좋다고 저항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다. 감심인수(甘心忍受)라, 나의 인과를 달게 수용한다. 그 인(因)에 그 과(果)가 따르는 것뿐이니 당연한 순리 아닌가!’ 한다. 이 이치는 심신의 느낌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사업이 흥할 때는 흥할 만한 무언가를 과거에 내가 했고, 망할 때는 망할 만한 짓을 과거에 내가 한 것이다. ‘인생사 거창한 일로부터 이 순간 이 느낌까지 다 과거에 내가 지은 바의 결과이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인과관(因果觀)이다. 현실이 고수(苦受)일 때는 충분한 참회를 하는 것도 좋다. 참회란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미래에 잘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해인칠관 제3, 지족관(知足觀): ‘현재 느껴지는 이 느낌, 이 상태, 이 현실은 얼마든지 이보다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비하면 다행한 것이야.’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만하니 감사한 것이다. 지족이요, 범사에 감사함이 이것이다. 현재 몸의 어느 부위가 심각하게 아픈 상태일 수도 있고, 형사적인 잘못을 범하여 수배대상으로 쫓기는 대상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음은 진정 다행한 일이요, 감사한 것이다.

礎受란 그 자체만을 따-기 끊어 생각한다면 중생衆生의 그것(기초수)이 나 성자聖者의 그것이나 똑같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초수 자체로 딱 끝나느냐 아니면 2중화살³⁾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각수覺受⁴⁾가 될 수도 있고 중생수衆生受⁵⁾가 될 수도 있다. 곧 기초수가 수용됨으로써 이 중화살을 부르지 않으면 이는 집착을 넘어선 무위無爲의 심리과정이니 바로 기초수 그대로 각수覺受이다. 기초수 수용을 경험하려면 ‘기초수’니, ‘기초수 수용’이니 하는 것들의 개념과 방법들을 선행해서 이해해야 함은 당연하다.

끝으로 ‘아我와 법法이 공空하니 걸림없이 그냥 깨어있는 것이 할 일 전부이다.’하고 속으로 읊조린다. 이 제 3관에 상응相應하는 의식상태의 느낌 역시 어떠한가 느껴보도록 한다. 물론 아공법공我空法空이라는 감각인지感覺認知 과정에 상응하는 느낌이 일어날 터, 이 느낌도 아공법공我空法空이라는 무위無爲의 조건條件에 의해 드러나는 느낌이니 이 느낌 역시 각수覺受이다.

거듭 이르거니와, 1~3관에 상응하는 각수覺受를 은밀하게 감지感知하는 것이 돈망의 결론이다. 이 세 개의 각수覺受는 그 설명이 각각 별도로 되고 있지만 경험 차원에서는 무한無限한 일미평등一味平等의 심리과정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인과인 이 현재, 그러한 행운인 이 현재를 그대로 느끼고, 수용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 이것이 인과관(因果觀)과 지족관(知足觀)을 전제로 한 수관(受觀)이다. 수관(受觀)에 있어서 인과관(因果觀)과 지족관(知足觀)을 전제로 하는가 여하(如何)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수 세월 명상생활을 해 온 사람이면 수궁할 것이다. [이하 생략]

- 3) 그 느낌을 그대로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념(들)에 떨어지는 것.
- 4) 깨달음의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느낌
- 5) 미성숙한 심리과정을 조건으로 해서 발생하는 느낌

053. 깨달음과 느낌受

위 <051. 삼사화합三事和合과 느낌>에서 <깨달음이란 의意가 무위법無爲法: 法0과 마주치는(觸) 심리과정>이라고 한 점과 <모든 감각인지感覺認知 과정에는 필히 느낌이 따른다>고 하는 점을 깊게 유념하면서 깨달음과 느낌의 상응相應점에 대해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한다.

- * 촉(감각-지각)하자마자 느낌(受)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생명 현상이다. 그 느낌을 감지해보고, 써보고, 나누어보고, 그리고 다루어 본다는 것. 좋지 않겠는가!
- * 느낌(受) 좋자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느낌受를 보다 좋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 * 사수捨受를 즐겨라. 고수苦受도 낙수樂受도 중독中毒이다.
- * 모든 감각인지感覺認知 과정에는 필히 느낌이 따른다고 했다. ‘意’로 ‘法0’을 감각인지 할 때 어떤 느낌이 따를까? ‘法0’이 무위법無爲法이니 느낌은 각수覺受일 것임은 당연하다.
- * 051번의 도표가 이르듯이 사람이라는 생명체는 무엇인가에 닿으면 느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마음으로.... 등등 말이다. 이 말이 당연하게 수공되는가?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생명체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眼耳鼻舌身意)이라는 감각기관이 있어서, 그 여섯 감각 기관으로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色聲香味觸法)이라는 여섯 경계를 감각感覺, 촉觸하게 되면 필히 고락사 삼수苦樂捨 三受(괴롭든지, 즐겁든지, 혹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든지 하는 세 가지 느낌) 중 어떤 느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지론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가?

* 근경식根境識⁶⁾을 삼사三事(세 가지 존재, 세 가지 사물)라 한다. 사람이라는 생명체의 생명 현상 중 첫 현상은 바로 근경식根境識 삼사三事의 화합和合이다. 이 삼사화합三事和合을 촉觸이라 하고, 이 촉觸에는 바로 수受(느낌)가 따른다. 12연기緣起의 [육입六入-촉觸-수受]의 과정이 그것이다. 이 사실 역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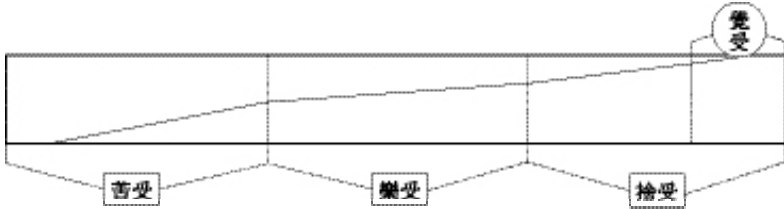
*** 그렇다면 의의가 무위법無爲法和 촉觸했을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나리라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다. 무위無爲가 수궁될 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앞에서 일렀듯이 바로 각수覺受요 니르바나 수受일 것이다. 느낌이란 고수苦受, 낙수樂受, 사수捨受, 곧 삼수三受⁷⁾ 범주範疇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각수覺受⁸⁾는 어떤 범주의 느낌일까? 고락사苦樂捨의 세 가지 수受 중에서 고수苦受나 낙수樂受가 아닐 것은 당연하다. 굳이 고락사苦樂捨 삼수三受 중 하나라면 사수捨受이지 않을까. 아니면 삼수三受의 범주에 드는 느낌이 아닌 새로운 느낌 범주를

6) 근(根)=육근(六根)=眼根, 耳根, 鼻根, 舌根, 身根, 意根
 경(境)=육경(六境)=色境, 聲境, 香境, 味境, 觸境, 法境
 식(識)=육식(六識)=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

7) 괴로운 느낌(苦受)과 즐거운 느낌(樂受)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捨受)

8) 깨달음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느낌

정해야 할까? 필자는 각수覺受를 사수捨受의 범주에 넣되 사수捨受 중 상위上位의 사수捨受로 정리하고 있다. 필자는 지옥 중생으로부터 묘각 불妙覺佛까지를 한 흐름 선상으로 보고 있다.



심불급중생시삼무차별心佛及衆生是三無差別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는 경전의 본각本覺 사상을 굳이 끌어오지 않는다 해도, 선불교禪佛敎의 즉심즉불即心即佛이나 여즉시불汝卽是佛을 들추지 않는다 해도, 무비無比선사의 사람 이대로 부처라는 인물人佛 사상을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조금만 사유를 해보면 중생과 부처란 번뇌가 정화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본성本性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임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 위에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 사상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견智見이 열린다면 번뇌라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分別이 사라지니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사수捨受와 각수覺受의 범주 문제는, [사수捨受의 연장선상에 각수覺受가 있다. 곧 각수覺受는 사수捨受의 범주에 드는 느낌이다. 사수捨受는 고통과 낙樂이 아닌 느낌이요, 각수覺受는 깨달음을 조건으로 하는 느낌이되 고통과 낙樂이 아닌 느낌이니 사수捨受이다.]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깨달음의 상태가 아무 '느낌' 없는 것이라고 오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깨달음이 좁은 뜻으로 어리석음의 상대개념이라 해도 어리석음을 벗어난 '느낌'이 있을 것임은 당연하고, 또한 넓은 뜻으로

번뇌일반(탐진치 삼독 등)이 사라진 개념으로 쓰이더라도 번뇌가 사라진 ‘느낌’이 있을 것임은 당연하다고 여겨야 할 것이다. 필자는 생명체에서의 느낌, 사람에게 있어서의 느낌, 인생에 있어서의 느낌, 역사에 있어서의 느낌, 모든 문화 문명에서의 느낌, 깨달음에 있어서의 느낌 등등, 이 느낌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해야 좋을지 몰라 항상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깨달음에 있어서의 느낌에 대해 특히 더 힘주어 말하고 있다.

가끔 공부인들과 깨달음에 대해 토론을 한다. 니르바나의 경지는 느낌이 초월되어 버린다고 주장하는 공부인을 접하면, 느낌이 초월되어 버린 그 상태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 것 같느냐고 나는 묻는다.

054. 돈망頓忘의 노래 1

그냥 있음이 [무한 오케이]라 했다.

그냥 있음이 무한으로 좋은 길이 있다면, 그 길!!! 걸어보고 싶지 않은가? 그 길이 돈망頓忘이다. 아직도 ‘어떻게?’라고 묻는가? 허심한 마음으로 격월간지 <지금여기>에 실린 용타의 글을 명상적으로 정독하면 된다. 눈으로 읽지 말고 이로 되새김질을 하면서 읽으면 된다.

그냥 있다. 이대로 그냥 무심히 깨어 있다. 그냥 있는 이 느낌, 고요한 느낌, 휴식감, 좋다. 참 좋다. 부처의 무심한 임재臨在가 이것 이상의 무엇이겠는가, 이것 이하의 무엇이겠는가!

그냥 있는 이 의식과정意識過程! 신비하지 않는가!

신비神秘 아님이 없는 이 일심법계一心法界! 굳이 제일신비第一神秘를 들추어야 한다면 지금 여기 이렇게 소소영령昭昭靈靈하게 빛나고 있는

이 또렷한 의식意識을 거론함에 주저함이 있겠는가! 불성佛性이요, 유식唯識이요, 본성本性이요, 자성自性이요, 불佛이라 일컬음에 거슬림이 없으니 이 또한 홍복洪福 아닌가!

혹여 실체實體 의식에, 아트만Atman이즘에 떨어질까 저어되는가? 이 장場이 어떤 마당인가? 무아無我야, 공空이야, 즉비卽非 등이 사천왕처럼 지키고 있는 공문중空門中 아닌가! 장엄莊嚴이라 하되 즉비장엄卽非莊嚴이요, 불성佛性이라 하되 즉비불성卽非佛性요, 공空이라 이르되 즉비공卽非空으로 진검승부眞劍勝負를 하는 도량道場에서 무엇을 심려하는가!

어떠한가? 이대로 그냥 있음이 넘치는 카리스마 아닌가! 석가모니의 무심한 발걸음에서 이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려 하는가? 혹여 이 삼엄한 돈頓의 자리에 점漸카드를 들고 가우똥하는가?

기초수基礎受를 그대로 수용한다 했다.

이중화살을 쏘지 않으면 기초수가 그대로 각수覺受로 승격한다 했다. 그냥 있음에 기초수는 최고의 복병이다. 복병을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큰 품으로 안아주는 것이 길이다. 허리가 결리고, 두통으로 시달리는가? 허리 결릴 짓 했고, 머리 아플 짓 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인과因果요 순리順理인가! 감심인수甘心忍受라 했지 않은가, 내가 지어 내가 받으니 달게 받아야지. 어디 그뿐인가, 아직 숨 잘 쉬고, 먹고 입을 것 이만하니 안분지족安分知足, 넘치는 행복 아닌가! 저항할 기초수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위에, 즉비卽非⁹⁾ 아닌가! 아공我空 법공法空 아닌가! 안팎으로 걸릴 것 자체가 본래 없으니 해탈 아닐 수가 본래 없지 않는가! 천하의 무량

9) 금강경의 가르침이다. 천하의 그 어떤 것이든 구획되는 실체란 없는 법, 편의상 어떤 개념을 쓰되 무한부정인 즉비卽非를 전제하고 쓰라는 가르침이다. 나도 卽非나요, 너도 卽非너일 뿐이다.


한 고뇌苦惱가 안팎으로 걸리는 것들 때문 아니던가! 걸려야 할 ‘나’가 본래 없고, 걸려야 할 대상이 본래 없는 자리에 고뇌苦惱 들어설 자리가 있겠는가! 일체一切의 유위법有爲法이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이요, 또한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이니... 이 각성覺性 홀로 적적寂寂이요 성성醒醒 아닌가!

혹여 허무론으로 들릴까 염려되는가? 본래 아무것 없는 자리에 이래저래 아파들 하니 뛰어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아파하니 뛰어들고, 걸릴 것 없으니 평안함이라! 평안하되 분주하고, 분주하되 걸리지 않으니 보살행菩薩行이라 하지 않던가!

그냥 있으니 좋고,
수용하니 더욱 좋고,
빙그레 놓으니 天下泰平 아닌가!

거듭,
또 거듭 묻노니—
어떠한가, 지금 그냥 있어지는가?
아니, 그냥 깨어있음이 경험되는가?
一切의 境界에 이중화살이 멈춰지는가?
그리고 천하가 본래 공소함을 수궁하는가?
그 수궁의 논지는 확연한가?
그렇다면, 안팎으로 벡터Vector 놀음을 하지 않고 있어지는가?
나아가,
그리고 또 묻노니,
지금 이 의식意識 말고 어느 곳에서 불성佛性を 찾겠는가?
깨물면 아야 하는 이 아픔을 떠나 어디에서 자성自性を 찾으려 하는가?

지금 여기 걸림 없는 이 의식, 이 존재가
바로 부처요, 불성이요, 자성이요, 돈망頓忘이라 함에
무슨 주저함이 있는가!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안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주지, 성륜문화재단 이사,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10분 해탈』이 있다.